



2023. 5. 9 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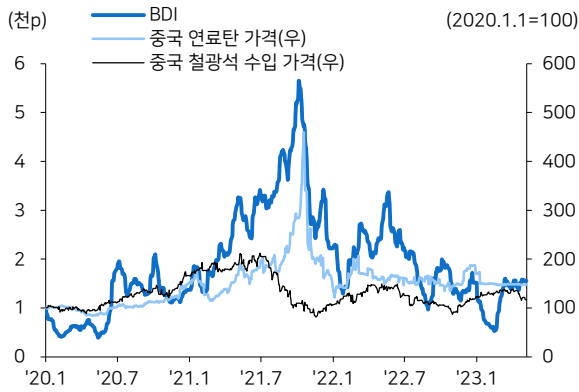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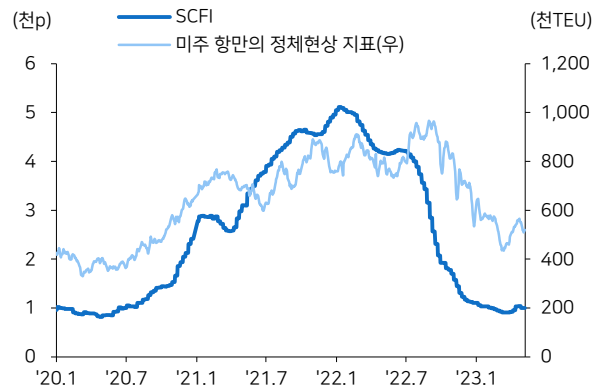
02. 6454-4873
jungha.oh@meritz.co.kr

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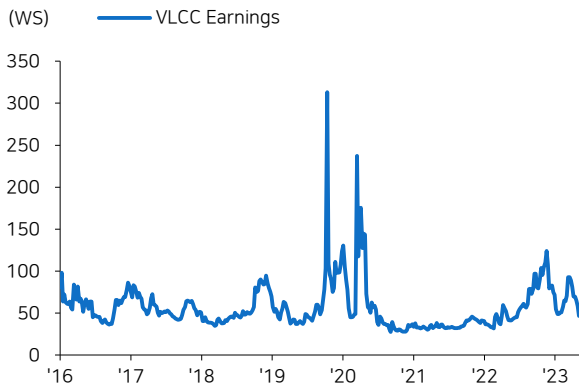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 1,558.0p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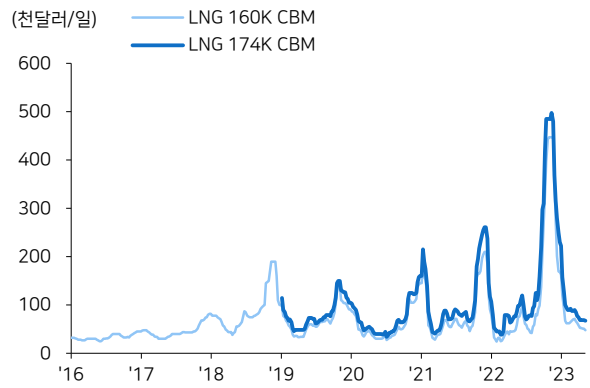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 998.3p(-1.4p WoW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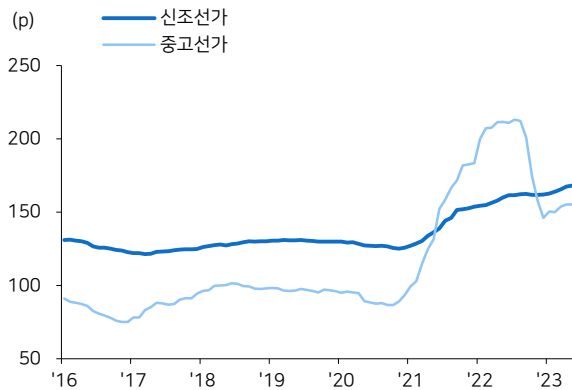
VLCC Spot Rate 46.4p(-11.8p WoW)



LNG Spot 운임 47.8천달러(-3.5천달러 WoW)
67.3천달러(-1.5천달러 WoW)



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8.1p(+0.8p WoW)
155.2p(+0.0p WoW)



중국 내수 후판가격 611.0달러(-9.0p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러 어깃장에...흑해곡물협정, 한 달 만에 또 중단 위기

러시아가 새로운 입항 선박 등록 및 검사를 거부하며 흑해곡물협정을 실질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보도됨. 우크라이나 재건부는 곡물을 싣기 위해 대기 중인 선박 62척을 포함해 총 90척의 선박이 우크라이나로 입항하고자 튀르키예 해역에서 대기 중이라고 언급함. 러시아는 오는 18일 협정이 종료된다고 주장하고, 4개 협정 당사자는 협정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됨. (연합뉴스) (<https://bit.ly/3NMkL1A>)

Hankuk Carbon fire: 'Lead time to production restarting' key for LNG newbuildings

한국카본 화재로 인한 약 25%의 생산능력 훼손이 6개월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LNG선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됨. Affinity LNG부문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의 연간 LNG선 생산역량은 20~25척 수준으로 알려짐. 6개월 내 회복 시 영향은 미미하겠으나 생산 능력 회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bit.ly/42dB7VD>)

Equinor reveals final investment decision on \$9 billion Brazil project

Equinor가 브라질 90억달러 규모 pre-salt FID를 결정했다고 보도됨. 일일 1,600만큐빅미터의 가스를 생산하는 FPSO가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짐. 일일 1,400만큐빅미터 가스가 수출될 예정으로 2028년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언급됨. (Upstream) (<https://bit.ly/3B3Xh0p>)

Chinese giant eyes LNG imports with talks over joining \$100 billion-plus Saudi gas project

중국이 사우디 Aramco의 수십억 달러규모 Jafurah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됨. 투자비중 및 방식을 고민 중으로 알려짐. Sinopec은 4월초 QatarEnergy의 North Field East(NFE) LNG 프로젝트 지분 5%를 취득한 바 있음. Sinopec은 LNG 및 수소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됨. (Upstream) (<https://bit.ly/3VJe6Y6>)

Adnoc fires starting gun on \$3 billion-plus oilfield expansion scheme

Adnoc이 Lower Zakum 해상유전(LTDP)을 포함한 3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유전 확장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. UAE는 2027년까지 5MBPD까지 확대할 계획임. LTDP Phase-1만 3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주규모로, 2027년말부터 520,000BPD를 생산할 예정으로 알려짐. Adnoc은 향후 3~4년간 Upper Zakum, Lower Zakum, Umm Shaifa와 Belbazem유전 보수 및 확장에 1,2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짐. (Upstream) (<https://bit.ly/3VJQ9zG>)

LNG 절묘한 줄타기

10년전 160KCBM LNG선 신조선가는 척당 1.99억달러, 발주잔량은 96척이었는데, 지금은 174KCBM급 선가가 척당 2.6억달러에 발주 잔량은 300척을 상회한다고 보도됨. 2026년말에는 40KCBM급 LNG선 척 수가 VLCC 척 수를 추월할 전망으로 알려짐. GTT와 Fearnly에 따르면 2030년경까지 선대 교체와 LNG교역량 증가 수요로 조선소는 매년 70~80척의 신조선을 건조해야할 전망으로 알려짐. 신조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증발률을 낮출 수 있는 three-cargo tank 선박도 제안되고 있다고 언급됨. (선박뉴스) (<https://bit.ly/3NPrNtE>)